

전남도-덴마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맞손'

18개 기업 참여 덴마크 사절단, 해상풍력 협력포럼 참석 30GW 규모 전남 시장 관심 보이며 상생발전 방안 모색

풍력산업 보급률과 산업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에 관심을 보이며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사)전남풍력산업협회와 함께 7일 도청 영인실에서 '전남도-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을 공동주최해 해상풍력발전 및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사브리나 미어손 마이네케 주한덴마크 부대사, 장중모 (사)전남풍력산업협회장, 아이너 엔센 CIP 글로벌 대외협력대표를 비롯한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18개 기업과 국내 해상풍력 22개 기업·기

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상풍력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사(Windpal), 해상풍력단지 인증 컨설팅사(DNV),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관리사(HAWE Energy solutions) 등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덴마크 해상풍력 산업 역사와 미래 및 시사점 ▲SK E&S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주제 발표로 진행했다.

이어 이상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록 베스타스 코리아 부사장 등 덴마크 측 전문가 5명, 김장환 전남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국내 전문가 4명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2020년 덴



7일 오전 도청 영인실에서 열린 '전남도-덴마크 해상풍력협력포럼'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과 환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마크 해상풍력 전용항만인 에스비에르항을 시찰하고 전남 해상풍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다"며 "덴마크로부터 얻

은 영감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에 선 지난해 착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여수·영

광 등 총 30GW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세계 풍력터빈 1위 기

업인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집적화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남을 동북아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이자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도내 해상풍력 발전사 및 연관기업과 덴마크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후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상풍력배후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해남 화원산단을 둘러보고 해상풍력 협력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과 11월 덴마크 에너지 및 에너지네트워커에 이은 이번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의 전남 방문은 유럽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진출 거점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서 전남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재정 기자

영광-장성 지방도 734호선 '깃재터널' 개통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경제·관광·문화 등 상생발전 기대

영광과 장성을 오가는 지역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도 734호선 깃재터널이 7일 개통했다.

개통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강중만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전남도의원, 영광·장성군 지역주민과 공사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기념사, 개통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광과 장성을 새롭게 잇는 깃재터

널 공사는 연장 3.9km로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 7년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 2월 공사를 완료했다.

주요 시설물은 고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1개소(1.1km), 교량 3개소, 회전식 교차로 3개소 등이다. 특히 겨울철 폭설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친환경 제설제 자동분사장치를 도입, 기상 악화에도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깃재터널 개통으로 영광과 장성 간 접근성이 좋아져 경제, 관광, 문화 등의 지역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간 상생을 이끌 깃재터널 개통을 축하하며 영광과 장성이 전남을 대표하는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성장하고 경제·관광·문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오늘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복지부,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향후 '제도화' 추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

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

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변화·발전 전환점 만들기 최선"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취임

광주시는 7일 "제4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이상갑(사진)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홀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광주 변화와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관행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재정전략회의 참석을 시작

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그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신인 출신인 이 부시장은 서석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인권국장, 근로진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시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했다. /박선기 기자

도·행안부, 순천의료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 당부

전남도는 7일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차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순천의료원을 찾아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공공의료원 비상근무 등 도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현재 전공의 이탈과 관련, 지역에서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5개소, 응급의료시설 9개소에서 2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공

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등 3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평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개원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평일 진료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명장환 행정부시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정성균 공고 제2024-267호

장성 백양 마이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장성 백양 마이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후변화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장성군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장성 백양 마이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나. 위치: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산28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1,453,138㎡ 라. 시 행 자: 19배양
마. 사업기간: 2023년 ~ 2028년

2. 주민참여 내용
가. 주민참여(영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22일(14일간)
나. 공람장소: 장성군 도시재생과, 북이면사무소, 북하면사무소
다. 정보통신망: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24년 03월 29일)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도시재생과(061-330-7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 지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드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 판매
임대 * A/S

T.375-5880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